

高麗시대의 건축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Korea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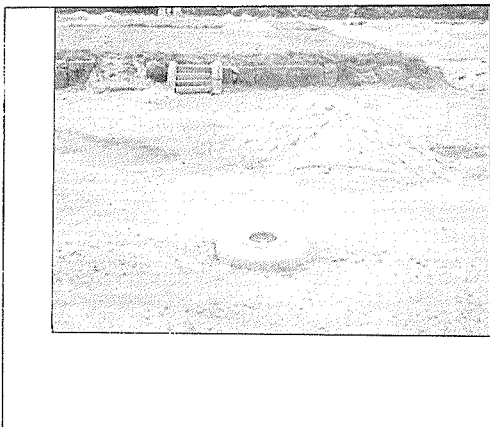
3. 高麗의 寺刹建築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이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고졸한 정수를 이루기는 했지만 토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종교로서의 불교가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에서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는 道敎의 요소와 風水圖識思想 또 사아만의 토속적인 신앙 등의 불교와 서로 융화하여 왕가(王家)와 귀족불교를 이루면서 민간신앙으로서도 뿌리를 깊게 내린 것이다. 한편 이 시대는 大覺國師에 의한 禪敎를 겸한 天台宗의 일어남은 불교계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가람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믿어진다.

고려태조 왕건은 後三國시대 분열기에 국내세력을 통합하여 건국을 함에 이리한 대업을 이룩한 것이 오직 불법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믿어 그의 만년에 소위 訓要十條를 선포하여 나라를 이끄는데 귀감이 되도록 유언을 했는데 그 중 第1條와 2條가 불교정책과 연관된 것이었다. 즉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국가의 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의 가호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禪敎寺院을 짓고 주지를 보내어 분향수업하여 도를 닦아 業을 다스리게 하여 후세에 간신배가 정권을 잡아 僧의 請과 간함을 따른다면 寺社가 서로 다투어 빼앗고

빼앗기고 할것이니 이는 금해야 할것이다」라고 하였고" 제2조에는 「모든 寺院은 모두 道說禪師가 그 山水의 순역을 추점하여 개창한 것인데 道說이 이르기를 '내가 점정한 바 이외에 함부로 더 사원을 창조하면 地德을 깎아 왕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 했으니 짐은 염려하건데 후세에 국왕, 公侯, 朝臣 등이 각기 願堂이라 칭하여 혹 더 창조할까 매우 걱정된다. 신라말에 다투어 절과 탑 등을 짓다가 지력을 쇠하게 하여 亡함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를 경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불교에 대한 지극한 정책과 풍수지리설의 존중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또 태조는 이르기를 「옛적에 신라는 9층탑(황룡사)을 세워 드디어 통일의 업을 달성하였다. 지금 나도 開京에 7층탑을, 西京에 9層塔을 건조하여 신통력을 빌어 兪群을 제거하고 삼국을 합하여 일가를 삼고자 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발원문을 지으라」고 하여 佛力으로서 국토통일을 이루려 했다. 따라서 개경 안의 法莊, 王輪 등 10寺와 廣明, 興國, 普濟, 智妙, 龜山, 開國 등의 名刹은 모두 태조의 창건으로 개경을 佛敎都市化하였다.

이리하여 7代の 왕과 신하들은 태조의 뜻을 받들어 불교를 깊이 신봉하게 되었고 王家나 귀족에게 세 아들이 있으면 그중 한 사람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실제로 많은



- ① 萬福寺址 五層 石塔
- ② 萬福寺址 木塔址
- ③ 萬福寺址 전경
- ④ 興德寺址 推定 伽藍配置圖
('86 淸州 興德寺址 學術會議 報告書에서 전재)

張慶浩
문화재 연구소장
by Chang, Kuyug-Ho



③

왕족들이 쯤이 되어 大覺國師와 같은 유명한 승도 탄생되었다. 『宋史』에 「고려왕성에는 70區의 佛寺가 있다」고 하였고 또 『高麗圖經』에도 「왕성에 긴 行閣의 每10間 장막에 불상을 모시었다」등의⁹⁾ 기록이 있어 당시 창사의 성행은 짐작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제4대 광종은 佛日寺를 조성하였고 제11대 문종은 興王寺를 창건하고 金塔을 세웠다.

한편 僧制를 보면 광종때 僧科制가 마련되어 합격하면 法階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大選, 다음에는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로 승진하며 그 후에는 종파에 따라 敎宗 계통에는 道座, 僧通과 禪宗 계통에는 禪師와 大禪師를 주었다. 또 국가와 왕실의 고문인 國師와 王師의 제도가 있어 최고의 법계인 僧通 및 大禪師 중에서 추대되는 것이 보통이었다.¹⁰⁾

고려 사찰가람에 대하여 논하면 전술했듯이 토속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가해져서 山神閣, 七成閣, 應眞殿, 靈山殿 등 불교 본연의 가람에서 벗어나 잡다한 건물의 배치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대 伽藍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伽藍의 형성과 배치에 있어 地勢 또는 山勢에 調和되도록 하고 있어 風水圖識思想을 존중하여 가람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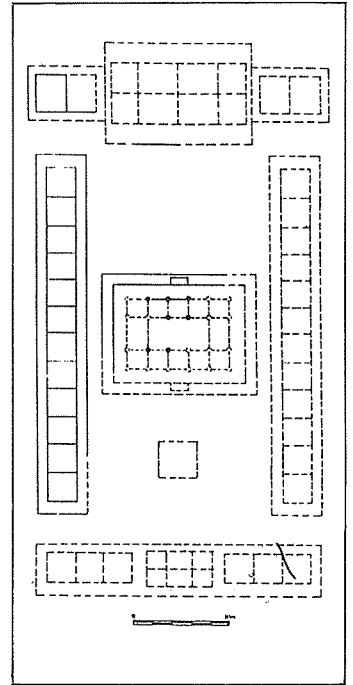
둘째, 一塔式 伽藍의 造成이 많은데 이것은 얼른 보면 백제의 전형적인 가람으로 남북축선상에 중문과 塔, 金堂, 講堂을 배열한 형식과 같으나 이와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다.

1) 백제가람과 같이 一塔式의 單廓으로 된 것은 청주의 興德寺址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남원의 萬福寺址나 개성의 佛日寺址와 같이 복합적인 배치로 조성된다. 이것은 불교가람에 민간 전통신앙인 샤아만적 요소들이 가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회랑이 백제의 경우처럼 중문과 강당을連하여 좌우대칭으로 완전히 둘러지는 예가 드물고 만복사지와 같이 남회랑만 중문 양측에 둔다거나 佛日寺址와 같이 中央區와 西歐사이에만 두는 그런 자유로운 배치이다. 즉 배치에 있어 규범을 지키는 엄격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3) 一塔式이면서 益山 彌勒寺址 가람과 같이 中院과 東·西院을 두는 예가 前期 佛日寺址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二塔式 가람인 興王寺址에서도 볼 수 있어 백제 미륵사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二塔式 가람도 있어 전술한 興王寺가 그 예가 되고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만복사지도 현존하는 5층 석탑이 후대의 것이라면 원래의 遺構인 목탑과 석탑지로



④

보아 2개의 탑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興王寺의 동·서 양탑은 八角의 목탑이었다는데서 특수가람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경기도 檜岩寺址는 사역을 지형에 맞추어 段築을 여러 곳에 두어 가람을 형성하는 예로서 여기서는 탑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 境內 대형의 浮屠 만을 둔 無塔願堂일 수도 있다.

다섯째, 전기 남원 만복사는 西殿東塔式과 일탑식이 혼용된 가람을 보이고 또 개성의 演福寺와 같이 東殿西塔式¹¹⁾의 가람을 갖는 것 등도 있다.

여섯째, 中原 미륵사지와 같은 石窟寺院의 조성형식도 있는데 이것 역시 고려시대에 사용된 가람형식의 하나라는 것을 聖居山 晚日寺¹²⁾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석굴사원에서는 석굴 앞에 前室을 두어 이것이 금당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람의 특성을 가졌으나 그 근본은 삼국시대의 가람형식에 두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고려불교는 사원의 納田·納奴·免稅·免役 등의 온갖 혜택과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寶(재단) 또는 長生庫라는 금융조직을 형성, 부유기관으로 재산축적과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 재산의 도피와 부패를 불러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이같이 고려불교의 지나친 성황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폐해도 많아 도를 닦을 승려들이 재산에 욕심을 갖고 財利를 다투는 자가 많았고 또 많은 寺塔의 건조와 잦은 불교행사로 국가재정에 낭비가 심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노동력과 생산력이 감퇴되어 국력을 상실하였다. 더우기 묘청이나 신돈 같은 자는 정치에 야심을 갖고 사회를 어지럽히어 禪僧의 체면을 실추시켰고 불교 자체로도 말기에 와서는 析福佛教로 전락하여 迷信과 결부되어 무속·음악·도참 기타 잡술을 나타내는 면도 있었다. 이리하여 고려말기에는 불교가 識者인 儒學者들의 비난을 받게되고 排佛 운동이 일어나면서 儒·佛이 서로 갈등과 반목하게된 것이며 후에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국정으로 억제당한다.

1. 高麗時代 伽藍의 例

고려시대의 사찰로는 많은 사명이 기록되어 개경 근처에만도 60여개의 사찰이 있었음을 『高麗古都徵』에 수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遺址로서 불리우는 절터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50여개소가 넘는다. 이 중에서

주요寺址만 뽑아 간단히 소개한다.

1) 萬福寺址

전라북도 南原市 王亭洞에 위치한 이 사지는 북쪽에 낮은 麒麟山을 배산으로 남쪽 광활한 들을 향하여 가람을 이루고 있다. 경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5층 석탑이 있고 그 북쪽에 좀 떨어져 신라말이나 고려초기의 것으로 믿어지는 석불입상이 지하에 깊이 묻혀 있었다. 또 이 석탑의 서편에 좀 떨어져 큰 金堂址가 표면에 보였고 건물중앙 후측에는 6각으로 된 석좌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당의 불좌로 보인다. 이곳은 1979년 부터 전면적으로 발굴조사되어 주요 건물지가 발표된 바 있다. 또 가람의 남쪽에는 석불입상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돌장승과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그 밑은 당간이 세워질 수 있게 懂竿支柱의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찰의 연혁은 『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고려 文宗(1046~1083)때 창건되었는데 西殿東塔의 가람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龍城志』佛宇條에는 世傳으로 되었지만 신라말의 所建이란 설이 있음을 알리고 丁酉再亂으로 거의 다 燒盡되었음과 大雄殿·藥師殿·丈六殿·普應殿·靈山殿 天佛殿·羅漢殿·冥府殿 등의

건물명이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집이나 기록에 만복사에 대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만복사는 고려초에 창건되었다 하나 그 이전에도 이 위치에 오래된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속하는 瓦當과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현재 5층석탑 북쪽에 있는 석불입상 역시 통일신라말까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사지는 1979년부터 장기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가람의 성격이 밝혀졌다. 대체적인 가람의 배치로서 남쪽에서부터 中門과 木塔, 그리고 이 목탑 左·右 및 後側에 金堂이 놓이고 그 북측으로 講堂과 부속건물들이 있었던 유구가 노출되고 가람동쪽 5층석탑 남쪽 좀 떨어진 곳에도 통일신라식의 石塔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동쪽에는 또다른 장방형의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전체가람은 목탑을 중심으로 볼 때 3金堂 1塔式이라 할 수도 있고 또 東金堂과 西金堂의 건축 연대를 달리 본다면 기록과 같이 西殿東塔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를 거쳐 결론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⁷⁾ 건물지 중 유구와 초석이 잘 남아 있어 주칸의 복원도 가능한 것은 목탑지와 東·西·北 금당지로 볼 수 있다.

목탑지는 正·側面 5間으로 기단 위 중앙에 심초석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적심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심초석이 있었는데중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주칸은 약 1.8m이고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그리고 갑석으로 결구한 기단으로 전후 중앙부에 계단이 남아있고 기단 한 변의 길이는 약 13m의 정방형 평면을 하고 있다.

이 목탑지에서 서쪽으로 중심거리 약 26m 거리에 西금당지가 있는데 대체로 남향하여 정면이 5칸, 측면이 4칸이 內外陳의 礎石列를 잘 보이는 건물지로 기단은 역시 가구식으로 결구한 기단이고 기단의 규모는 동서 약 24.7m이고 남북 약 19.2m이다. 역시 기단 전후 중앙에는 계단지가 하나씩 있다. 주칸의 크기는 정면의 중앙 3칸은 4.35m이고 그 좌우칸은 3.78m로 당시의 營造尺으로 14尺과 12尺이 된다. 내진의 북동측에는 초석과 고막이 돌이 남아있는데 柱座와

하인방이 놓이는 곳의 몰당은 통일신라시대의 것과 유사하나 턱이 높고 선이 굵은 것이 특이하다. 적심은 대형의 판석과 냇돌을 혼용하여 다지고 그 위에 초석을 놓게 한 것과 割石과 냇돌을 혼용한것, 또 냇돌만으로 적심을 이룬 것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판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다진 적심석의 형식은 익산 미륵사에서 보이는 백제계의 적심으로 추측된다. 또 기단 위에는 堦를 깔았는데 그 크기가 39cm×39cm×4cm와 39cm×12cm×4cm의 규격을 보인다. 건물지내 북편 중앙에는 6각형의 불좌대가 있어 이곳에 청동불을 안치하였던 자리이다. 이 금당지 앞에는 석등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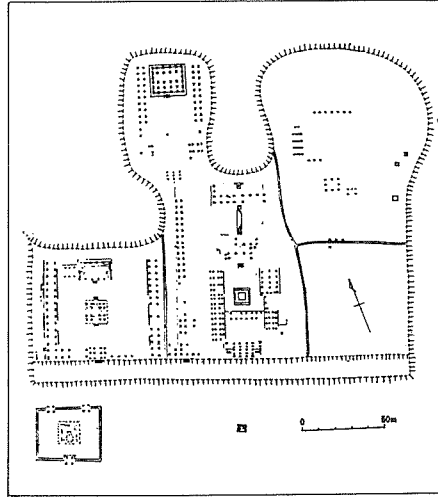
목탑지에서 북쪽으로 16.2m 중심거리에 北금당지가 위치하는데 정면 5칸, 측면 4칸의 内外陳을 둔 건물지이다. 주칸은 정·측면 다같이 2.35m로 당시 사용 척도로서 7.5尺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금당지의 초석은 西금당지와는 달리 원형주좌에 통일신라식 몰당을 두지 않고 주좌의 변죽을 거의 직선을 이루도록 斜切하여 익산 미륵사지의 백제계 초석과 유사하다 할 수 있지만 주좌의 운두가 높아 미륵사지 것과는 다르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가 16.2m, 남북이 13.8m인 비례를 보이고 기단의 높이는 약 1.2m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서측과 북측 기단석 내부 50cm 안쪽으로 瓦積의 기단이 노출되어 이것이 석기단보다 선행된 기단인지 처음부터 2중으로 쌓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기단내 내진초석 동북쪽에는 직경 약 1.4m의 원형 蓮華臺座가 있어 불상을 봉안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또 이 건물지 남쪽에서도 석등지가 확인되었다.

東금당지는 목탑지의 동쪽 중심거리 약 15.2m 되는 위치에서 노출되었다. 주칸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중앙칸이 당시 영조척으로 15.5尺이고 양 협칸이 10.5尺으로 추정되었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16.8m, 남북이 15.2m로서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기단의 지대석과 면석이 일부 잔존하여 石架構式 기단임을 알 수 있다. 기단의 남벽에 계단지가 있었다.

中門址는 목탑지 남쪽 중심거리 24/2m에 위치하는데 유구가 많이 유실되어 그 규모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발굴지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강당지는 北금당지의 북쪽 약



36.7m에 중심거리를 두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유구가 잘 남아 있지 않고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정면이 7칸이고 측면이 5칸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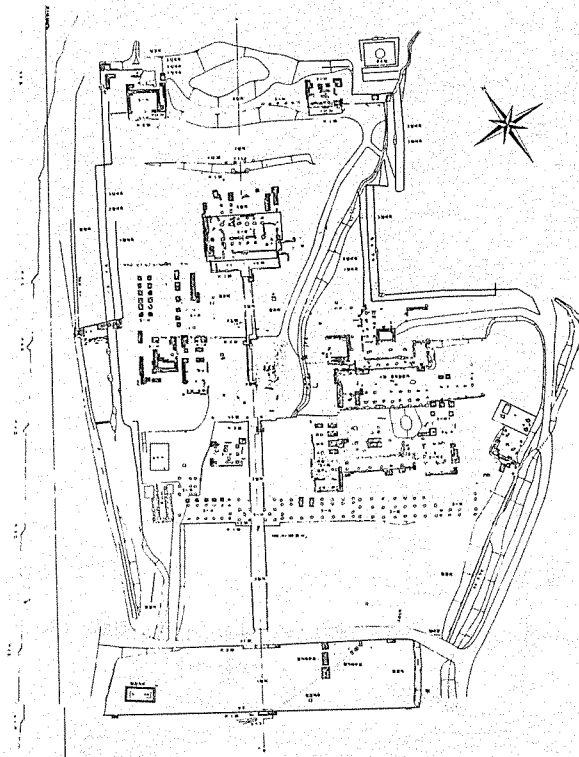
2) 興王寺址

흥왕사는 고려 문종이 1067년에 창건한 거찰이다.⁸⁾

기록에 의하면 동왕 24년(1070년) 2월에는 慈氏殿을 신축하고 동년 6월에 흥왕사 주위에 성을 쌓았다. 동왕 32년 7월에 금탑을, 34년 6월에 석탑을 조성하였다. 이 절은 고려의 대가람으로도 중요하지만 대각국사 義天이 고려 續藏經 주조사업을 펼친 곳으로 우리 문화사의 중요한 장을 이룬 곳이다. 흥왕사지는 현재는 북한에 있어 가볼 수 없는 개풍군 봉동면 흥왕리에 있다.

이 사지의 조사는 1948년 국립박물관에서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사지는 광활한데 중앙부 高臺에 있는 가람과 동·서 양측에 각각 평탄한 대지가 있어 중앙가람과 석축으로 구획된 가람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구획을 이룬 가람은 중심곽을 이루며 남향하고 있다. 중앙구에는 북측에 거대한



- ⑤ 檜岩寺址 基壇과 石階
- ⑥ 檜岩寺址 建物址礎石
- ⑦ 佛峙址 遺蹟配置圖 (朝鮮學報 113호에서 전재)
- ⑧ 檜岩寺址 遺蹟 配置圖(檜岩寺址 實測調査報告書에서 전재)
- ⑨ 中原郡 미륵사지 석불 및 석굴
- ⑩ 興王寺址 遺蹟配置圖(白性部 博士 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에서 전재)
- ⑪ 居頌寺址 遺蹟配置圖(居頌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에서 전재)
- ⑫ 萬福寺址 推定伽藍 配置圖(萬福寺 發掘調査報告書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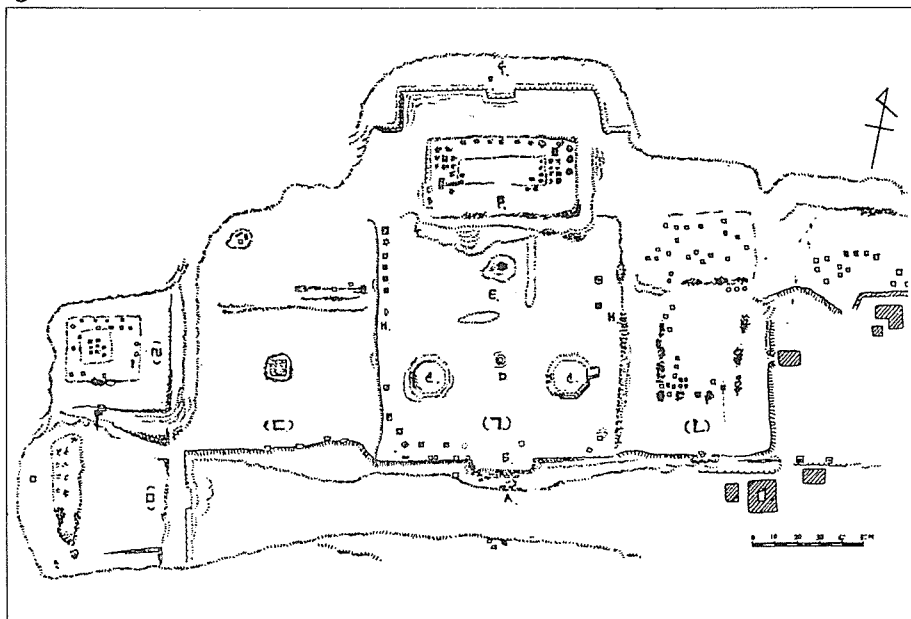
9

규모의 강당지가 있고 그 앞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으며 남북축선상의 전방에는 석등지가 있고 그 양측에는 8각의 건물지(木塔址)가 놓이고 가람 전면에는 중문지가 있으며 이 중문과 강당지를 둘러싼 회랑지가 있다. 가람의 동원은 서원과 같이 석축으로 중원과 구획되어 있는데 그 남쪽에는 중원보다 작은 석축단과 중문지로 보이는 유구가 있고 그 중앙에 계단지가 추정되고 남편 중앙에 비교적 다수의 초석으로 된 건물지와 그 북편에도 건물지가 있다. 서원 역시 동원과 유사하게 남쪽에는 석축이 있고 그 안의 남쪽 중앙부에는 석탑지가 있으며 북쪽에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심곽 외에도 서쪽의 높은 지대와 그 남쪽에 독립된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배치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원 북측 高臺와 동원의 동북측에도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사역은 지극히 광대하였던 것 같다. 이곳의 석탑에 대하여는 金塔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탑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미흡한 발굴조사로서는 기록에 나타난 대장전이나 자씨전이 어디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가람배치에 있어 익산의 미륵사지와 같이 동·서·중원이 병렬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목탑지는 石造段築基壇을 쌓았는데 맨 아래에는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3단의

10



장대석을 쌓아 면석을 이루고 8면에 隅柱石을 배치했다. 이 8각 殿址의 一邊長은 5.69m로서 전폭이 12.73m이다. 또 이 목탑지 間的 주심거리는 63.5m라고 한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日暉文 와당과 치미편 등이다.

3) 佛日寺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불일사는 951년에 先妣인 劉氏의 願堂으로 창건했다고 한다. 사지는 현재 북한의 판문군 산적리 보봉산 남쪽 기슭 불일동에 위치한다. 비교적 넓은 대지상에 산을 배후로 하여 동남으로 펼쳐진 평지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 4km쯤 가면 華藏寺가 있고 남쪽에 작은 언덕을 넘어서면 고려 문종의 景陵이 있다. 사지의 발굴조사는 1959년에 실시하였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사지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高臺地上에 있어 대지의 동·서변은 산 기슭에 접하여 있으며 동서 폭이 약 230m, 남북이 중앙구에서 115m이며 최북단 건물지까지는 175m였다. 대체적인 가람의 형성은 동서 방향으로 3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중 중앙구역의 가람이 가장 짜임새 있는 중심곽을 이루며 이곳에 5층석탑이 놓여 있다.

중앙구역의 가람에는 남쪽에서부터 중문과 석탑, 금당 그리고 강당지가 남북 가람축선상에 놓이고 서쪽에는 금당지 중심에서 약 32m 떨어져 단랑으로 된 회랑지가 노출되었다. 이 회랑지 남단은

중문지와 횡축선상에 있는 또하나의 중문지(5칸×2칸)와 연결되고 그 북단은 강당지 부근에서 일단 끊기는데 강당지와 연결되는 북회랑지는 찾지 못하고 북쪽에 다른 구획을 이룬 동·서회랑을 갖는 건물지(5칸×5칸)가 확인되었다. 서편구역의 가람은 중앙구보다 낮게 놓였는데 여기서도 문지(3칸×2칸)와 4면회랑, 그리고 중앙에 3칸×3칸 규모의 정방형 건물지가 있으며 북쪽에 장방형 건물지가 회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 西區의 가람 남쪽 門址로부터 약 75m 거리에 40m×32m의 방형 평면으로, 주위에 담장을 두른 별도의 구역이 있어 이 안 중앙에는 방형의 舍利壇이 있다. 이 사리단으로 출입하는 문은 남쪽에 1개소, 북쪽에 2개소가 있다. 사리단은 外壇에 높이 30cm의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本壇을 조성하였는데 한 변이 9m, 높이는 80cm이며 중앙으로 두툼하게 하여 여기에 또 한 변 2m, 두께 40cm 크기의 판석을 놓았는데 이 판석 위에 직경 약 1m의 원형으로 된 자리가 남아있고 그 위에 石鍾形 사리탑을 세웠던 것 같다고 하였다. 이 方壇 네귀에는 사천왕상을 배치하고 단의 측벽에는 일정한 구획을 이루어 飛天像을 조각하였다.

동쪽구역의 가람은 중앙구역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북단부에서 건물지의 유구가 여러 개 노출되었으나 훼손이 심하여 그 성격과 규모를 알 수 없다. 이상의 기술로 이 사지의 가람은 一塔式 가람인데 전술한 興王寺나 萬福寺와 같이 2~3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러한 가람의 형식은 우리나라 고대가람에서 볼 수 있어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불일사의 주요건물지를 논하면 우선 탑과 그 부근의 건물지를 들 수 있는데 중앙구의 금당지 남쪽 약 30m 떨어진 위치에 놓여 상·하층기단 위에 놓여있다. 5층의 석탑으로 낙수면이 가파르고 고졸한 입면과 투박한 옥개석 등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인데 지금은 개성시에 옮겨졌다고 한다. 1960년 이 탑을 해체하였을때 1~2층 탑신내에서 20 여개의 소탑이 발견되었는데 石制와 금동제·청동제 등이고 작은 향아리와 經文·비단편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 탑 바로 좌우에 가까이 떨어져서 남북으로 길게 둔 장방형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이것은 대웅전지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 동측의 것은 2개의 건물로 나뉘어졌다.

또 대웅전지는 탑과 축을 맞추어 북쪽에 위치하는데 탑의 지반보다 약 2m 높은 지반에 놓여있다. 주칸은 5칸×4칸으로 추정되고 초석의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방형초석으로 중문의 초석규격과 같이 한 변 1m 정도이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약 25m, 남북 약 17m이며 전면의 계단지는 폭이 3.46m이고 7단으로 약 2.1m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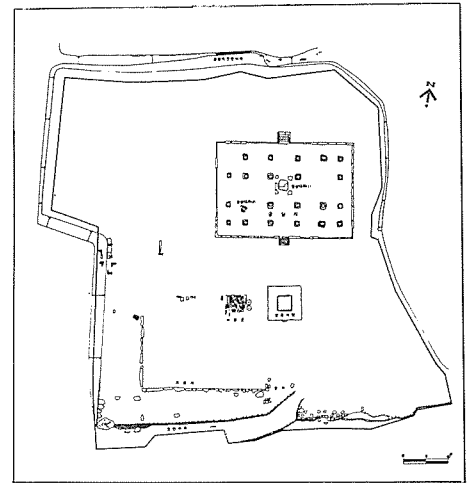
4) 興德寺址

이 사지는 충북 청주시내에서 사직동으로 가는 청주대교를 건너 제방을 따라 북쪽으로 1km쯤 가다가 왼쪽 들을 건너 있는 梁岳山 동남기슭에 위치한다. 지금은 이곳이 운천동에 속한다. 지형으로 보아 남서와 서북 그리고 동북쪽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역에, 평지를 이용하여 남향한 가람을 조성한 것이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거의 파손되었던 것을 1985년에 발굴조사한 것인데 이에 앞서 이 부근에서 686년(垂拱二年)에 조성된 新羅寺蹟碑가 조사 보고된 바가 있고 1984년에는 이 사지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운천동 사지 발굴조사가 있었다. 이곳에서 청동 도가니가 여러 점 출토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한편 흥덕사지에서는 「柱香之寺」銘瓦와 「興德寺」銘의 청동제 禁口(쟁가리 비슷하게 생겨 절에서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片이 발견되었고 청동 佛鉢뚜껑에서도 「興德寺」란 이름이 나타났으므로 이곳이 틀림없이 고려때(1377년) 白雲화상이 초록한 『佛祖直指心體要節』을 鑄字印刷한 淸州牧外 興德寺 터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중 서회랑지에서 「大中三年」(849)명 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은 적어도 신라말에도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사지의 가람은 이미 기술했듯이 가람의 반 이상이 유실되어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현 유구를 근거로 추정되는 가람은 남북 축선상에 주요건물을 배치한 일탑식 가람으로 석탑재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석탑을 둔 가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유구로 金堂址와 강당지가 있고 회랑지 일부가 노출되어 남에서부터 중문과 석탑 그리고 금당과 강당을 축에 맞추어 배치하고 그 주위를 회랑으로 둘러 가람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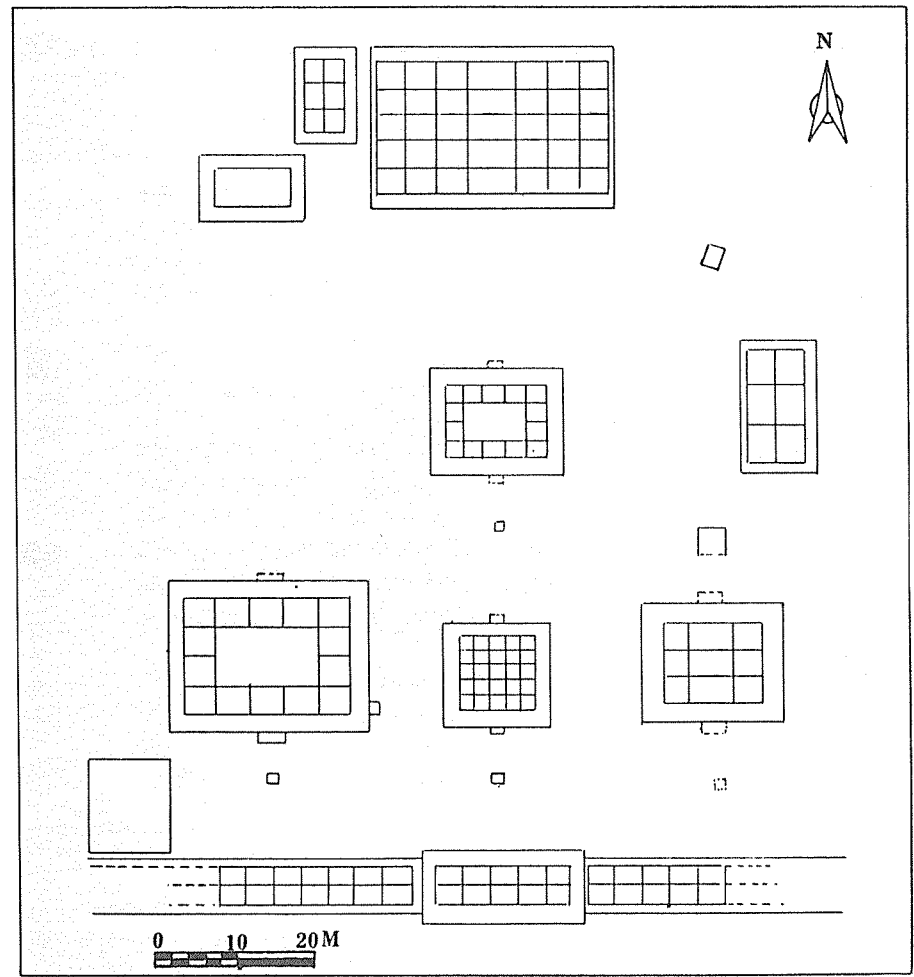
금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정면

주칸은 2.1m이고 측면은 3.4m와 협칸 2.1m이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53尺, 남북 39尺이다. 강당지는 유실이 많이 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이상의 고려사지 실례 이외에도 석굴사원으로 가람을 형성한 증원 미륵사지와 탑이 없이 부도를 모신 願堂으로 추측되는 경기도 양주군의 檜岩寺址 등이 있으나 생략한다.



11



12

註

- 1) 高麗史, 世家 卷第一 太祖 二十六年條
- 2) 高麗史, 列傳 卷之九十二 崔擬傳
- 3) 高麗圖經 第二十三卷, 雜俗二施水條
- 4) 閔內河, 韓國史大系 4 高麗, 三珍社, 1973
- 5) 高裕燮, 松都古蹟
- 6) 李殷昌, 聖居山 晚日寺 調查報告, 古文化 第 5,6合輯, 韓國大學 博物館 協會, 1969
- 7) 拙稿, 高麗伽藍의 研究, 考古美術 通권175, 176호, 韓國美術史學會, 1987.
- 8) 高麗史, 世家 卷第八 文宗二十一年條.